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습득 과정 사례 연구*

박 현 진

Abstract

Park Hyunjin. 2012. 2. 28. **Case Study on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an English-Speaker in Korea.** *Bilingual Research* 48, 109-157. This research is based on a longitudinal study dealing with cultural encounters and cultural perceptions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detail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an English-Speaker living and working in Korea. The present study utilizes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in order to analyze an interview and the narrative diary of an English Speaker during a 9 months period while living, working in Korea and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e narratives in the diaries and the interview has been first coded and then analyzed by theme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analysis shows a certain degree of adaptation and adjustment process in perceptions toward the Korean society, toward the Korean language and human relations.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help teachers of Korean to develop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subjectivity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to produce more effective learning materials. (Korea University)

【Key word】 문화 습득 과정(acculturation process), 문화 차이(cultural differences), 문화 충격(culture shock), 영어 화자(English-Speaker), 장기 연구(longitudinal study), 사례 연구(Case Study)

* 이 연구는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음.

1. 서론

이 논문은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문화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 습득¹⁾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적응하며 살 때 목표어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들은 언어 이외에도 새로운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문화 요소 중에서 재한 외국인들이 모르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함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문화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다. Brown(2007)은 언어와 문화는 복잡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2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은 제2 문화의 습득이기도 하다고 했다. 사실 언어는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목표 언어의 문화적 관습,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행동 양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내부적 분열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겪게 되는 것이 문화 충격이다. Brown(2007: 208)에 의하면 문화 충격(culture shock)은 가벼운 신경 거슬림으로부터 깊은 심리적 공포와 위기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차이와 스트레스, 나아가 충격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관심의 폭은 넓지 못한 실정이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중 미국인은 5.4%이며, 2008년 대비 가장 큰 폭(119%)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 영어권 화자를 대상

1) Brown은 제2 언어 습득은 어느 정도의 제2 문화 습득을 포함한다고 말하며 ‘문화 습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Brown, 2007:207)

2)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

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문화 습득 과정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실생활 속 이문화 경험과 심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9개월 동안 영어권 화자의 일기 자료를 수집하고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영어권 화자가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이문화 사건과 이문화 스트레스 및 충격 요인,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변화, 문화 습득 단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는 영어권 화자의 문화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문화 교육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장에서 문화 습득과 문화 차이, 문화 충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필요성을 밝힌 뒤, 문화 습득 단계와 충격 요인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본 사례 연구의 절차와 대상,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 상세화한다. 그 후 4장에서는 수집된 일기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실제로 제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이문화 환경에서의 문화 습득 과정과 이문화 스트레스 및 충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재한 영어권 화자 중 미국인이 이문화적 사건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시기별로 문화 충격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유학생의 문화 적응과 문화 충격에 관한 연구들을 선행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³⁾

년 대비 미국은 대폭 증가(119%)하였으며, 중앙아 33.4%, 남부아 31.7%, 중국 21.2%, 동남아 19.1% 증가하였다.

- 3)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는 영어권 화자의 상황과 거리가 있으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했다.

지금까지의 문화 차이, 충격,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이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발표한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장혁심(2005), 장연(2005), 황해연(2007)이 있고, 일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야노 미찌코(2002), 와타나베 요시아스(2002), 후루카와 아야코(2006), 황정민(2006) 등이 있다.

장혁심(2005)은 유학생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과 개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과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장연(2005)은 한국어 숙달도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어 숙달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에 더 잘 적응한다고 분석한다. 황해연(2007)은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대인관계 문제에 집중하여 대인관계가 중국 유학생의 적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접근한다. 그 결과 유학생들에게 대인관계 욕구는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민성이 높아지면서 생활 적응에 대인관계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야노 미찌코(2002)는 이문화 접촉에서 발생하는 적응상의 문제들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문화적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와타나베 요시아스(2002)도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문화 적응 양상과 영향 요인을 밝힌다. 또한 그 결과를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야노 미찌코의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면담 내용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어, 두 연구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기한 연구도 있다. 후루카와 아야코(2006)은 일본인 17명의 인터넷 개인 사이트에 초기 1년간의 일지를 분석하고 5명을 인터뷰하여 문화 충격 내용을 선별, 연구자의 의견까지 요약 인용한

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호기심을 보이는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이후 문화 충격을 경험하다가 6개월을 전후로 초기 적응 단계에 들어간다고 분석한다. 또한 학업, 취업, 국제결혼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변별점이 있다. 황정민(2006)은 일본 학습자를 대상으로 민족지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한다. 그 결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문화 의사소통 교육의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위의 두 연구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연구 방법 제시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은 외국인의 문화 습득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시작하여 충격 요인들을 파악하고, 특정 요인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 개인의 문화 적응 양상에 관심을 갖는 연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설문조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의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의 특정 국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미국 출신 이주민 및 유학생을 고려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수를 통한 일반화가 아닌 한 개인의 삶에 밀착하여 구체적인 이문화 사건과 충격 요인을 밝힘으로 문화 습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Brown(2007)은 문화 습득을 네 가지의 연속적인 단계로 설명하는데 1단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분과 도취의 시기이고, 2단계는 문화 충격 단계이며, 3단계는 충격에서 회복돼 가는 단계이고, 4단계는 거의 또는 완전히 회복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Oberg(1963)와 Adler(1975)가 분류한 문화 습득 단계와 유사하다.⁴⁾

4) Oberg(1963)는 문화 충격을 ‘새로운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밀월, 위기, 회복, 적응의 4단계로 분류했다. 밀월 단계는 새로운 문화를 만나 황홀하고 감탄하는 시기이고, 위기 단계는 열정을 느끼

위의 세 가지 모형을 보면 단계의 세분화와 서술의 초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 이문화 환경을 처음 접했을 때의 흥분 상태로 시작하여, 점차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거쳐, 부분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차차 이문화에 적응하여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 흐름을 갖는다. 따라서 최근의 논의인 Brown(2007)의 문화 습득 4단계를 기본적인 습득 과정으로 설정하고 연구에 적용하겠다.

이러한 문화 습득 모형은 단계의 선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각 단계 사이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물론 단계가 변화는 시점이나 변화 촉발 요인은 개인의 성격과 적응 동기, 언어 능력, 국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 습득 과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과 요인들을 대상자에게 밀착하여 살피는 일은 이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이문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격의 정도를 예측하는 데에는 Redden(Redden 1975, Parsons, R. L. 2007에서 재인용)의 문화 충격 목록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Redden은 이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범주화하여 문화 충격 목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연구 대상자의 태도와 상태를 판단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

던 새로운 문화 현상들로부터 불안, 분노를 느끼는 시기이다. 회복 단계는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가며 적응해 가는 때이며, 마지막으로 적응 단계는 새로운 단계를 즐기고 기능적으로 유능해지는 시기이다. 그의 학설은 문화 습득 과정을 이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심리적 적응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Adler(1975)는 이문화 체험 유형을 이문화 접촉, 자기 붕괴, 자기 재통합, 자율, 독립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을 인지, 감정, 행동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전의 논의가 심리적 반응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Adler는 이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현상을 세분화하여 접근함에 따라 각 단계별 심리 상태와 행동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표 1> Redden(Redden 1975, Parsons, R. L. 2007에서 재인용)의 Culture Shock inventory model

목록	내용
1. 자문화중심주의 (Ethnocentric)	모국의 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정도
2. 이문화 경험 (Intercultural experience)	이전에 이문화 충격과 적응을 경험한 개인이 쉽게 적응하는 정도
3. 인식의 유연성 (Cognitive Flex)	외국의 생각, 환경, 경험에 대한 수용 정도
4. 행동의 유연성 (Behavioral Flex)	문화 습득을 위한 행동 변화에 대한 유연성 정도
5. 이문화에 대한 일반지식 (General intercultural knowledge)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이문화에 대한 일반 지식
6. 특정 이문화에 대한 지식 (Specific intercultural knowledge)	문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정에 대한 특정한 지식
7. 적절한 행동 (Adequate Behavior)	주류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8. 대인관계 기술 (Interpersonal skills)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문화중심주의’는 모국의 가치관이 외국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문화 경험’은 이문화 접촉 유무와 언어, 문화에 대한 학습 정도가 포함될 수 있다. ‘인식의 유연성’은 외국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의 정도이며 ‘행동의 유연성’은 행동으로 전이, 변화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이문화의 제도,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정도이며, ‘특정 지식’은 이문화의 특정한 관습, 행동양식에 관한 지식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행동’은 이문화 간의 행동양식 차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이며 ‘대인관계 기술’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말한다.

각각의 국면들은 이문화 적응을 극대화시키거나 저하시키고 심지어 저해하기도 한다. 8개의 국면들은 개인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이 통합된 것으로 개인의 이해와 수용 정도에 따라 문화 충격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일기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할 때에 연구

대상자가 각 시기마다 어떤 국면들이 변화하며 문화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문화 충격이란 것이 개인이 겪는 심리적 반응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이해해 나간다. 이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문화 습득 과정이나 문화 충격 사례를 알 수 있다. Merriam(1988)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 연구는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삼각측량을 위해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되었는데 하나는 일기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반구조화된 직접 인터뷰 자료이다. Pavlenko(2007)가 말했듯이 내러티브는 응용언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며, 분석할 때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의 기본 자료인 일기는 내러티브 방식 중 하나로 연구 대상자와 그가 놓인 사회적 맥락이 잘 고려된다면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자료를 토대로 영어권 화자가 한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3.1 연구 절차

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는 한국어 교사와 학생으로 2010년 7월 5일 처음 만난 후 6주 동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고 다양한 클럽 활동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했다. 본 연구에 대한 정보와 동의는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 2010년 8월 18일, 이메일로 12명의 영어권 화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정보를 보냈고 7명이 관심을 표명했다. 그 후 7명에게 한국 생

활 중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메일은 연구 대상자의 이해를 위해 영어로 작성하였다.

두 번째 메일까지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연구 동의를 보냈고 본격적인 일기 자료는 9월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한 명이 성실하게 답장을 보내 왔고 내용도 충실했다. 관찰 대상자의 수보다 내용의 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계속하였다.⁵⁾ 대상자는 이후 A로 표시한다. A는 9월 5일부터 메일을 보내 왔고, 연구자는 메일을 읽은 후 소감을 답장으로 보내주었다.

2011년 3월 12일 본 연구의 두 번째 방법인 인터뷰를 위해 반구조화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날짜는 이메일을 통해 조율하였고 A가 지방에 거주하므로 서울에 방문했을 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세미나실이 제공되는 모임 전문 공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였기 때문에 A의 반응에 따라 연구자가 추가 질문을 하였고 A도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 한국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3.2 연구 대상자

A는 20대 중반의 백인 미국인 남자이다. 1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국

5) 연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은 동양계 미국인이거나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동양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문화 충격이 크지 않았고 일기 내용도 일반적인 생활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9개월 동안 총 5번 이하로 메일을 보내 왔고 이중 3명의 일기 내용은 4, 5줄 정도의 소량이었다. 다른 1명은 백인 미국 남성이었는데 그 역시 2번밖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으며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Lincoln과 Guba(1985: 359, 360)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의 유의미성은 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대상자가 한 명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한 명으로 축소되면서 생긴 약점을 장기간의 연구와 다양한 방법론으로의 자료 수집, 해석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공립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한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7월 4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2011년 5월)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A는 한국에 도착한 후 6주 동안 10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받았으며 한국 문화 체험과 함께 문화 교육도 받았다.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지방 도시에 위치한 국립고등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다. 입국 후 교육을 받았던 6주간의 기숙사 생활 이후 8월 말부터 한국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홈스테이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초등학교 6학년 형제가 한 명 있고 부모님은 모두 교사이며 어머니는 그가 일하는 학교에서 함께 일한다. 2010년까지 4명이 함께 생활하다가 2011년부터 30대 초반의 한국 여자가 새로운 식구로 합류한 상태이다. 그녀는 홈스테이 아버지의 옛 제자이며 가족과 아주 친밀하다.

A는 미국 중부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공은 통합생물학이고 동아시아 언어문화와 스페인어를 부전공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류를 가진 적이 있다. 한국에는 2008년 여름에 8일간 방문한 적이 있고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한국에 와서 학습한 6주가 전부로 한국어 능력은 초급 수준이다. 그러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말하기는 중급 수준이다.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인물들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A는 매우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공부할 때는 표나 그래프로 체계화시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사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며 남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국어 학습과 직장, 가정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A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미국인이 처한 여러 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의 예민한 성격이 문화 차이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3.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일기 자료와 반구조화된 직접 인터뷰 전사 자료이다. 일기 자료 수집은 한 달에 한두 번 일기 형식의 이메일을 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9월에는 두 번의 일기 메일을 받았고 10월~12월은 한 번씩 메일을 받았다. 겨울 방학 기간인 1, 2월은 국내외 여행과 캠프 참여 등으로 합의 하에 이메일을 받는 시기를 미루었다. 대신 국내외 여행 중 느낀 점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후 일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시 2011년 3월부터 일기 자료를 받아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 10일 현재까지 수집된 일기는 총 7개이다. A는 몇 주간 생활 속에서 느끼거나 경험한 것을 작성한 후 수합해서 메일을 보낸다. 따라서 일기를 보내 온 날짜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일기는 A의 모국어인 영어로 작성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인터뷰로 한 차례 이루어졌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A가 보내 온 에피소드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과 그 당시에 사건을 이해한 방식, 현재 이해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A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녹음된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1차 전사하였고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표시한 후, 미국인 영어 화자에 의해 2차 전사되었다. 인터뷰 전사에서 사용한 표시는 Jefferson(2004)를 참고한 후 연구자가 수정하였다.⁶⁾

3.4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질적 연구 차원에서 접근한 사례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의

6) 전사 표시와 자료 수집 과정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결과가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화를 지향하지 않지만 신뢰성은 확보돼야 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해석 단계에서 삼각측량으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일기와 인터뷰로 수집 방법을 다각화하였고, 인터뷰 녹음 전사는 영어 원어민 화자에 의해 검토되었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A의 일기 자료와 인터뷰 대화 직접 인용, A에 의한 해석과 확인, 선행 연구와의 비교의 삼각측량으로 신뢰성을 높였다. A는 본 연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사건을 위주로 일기를 써서 보내왔다. 따라서 수집된 일기 내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제외된 사건은 없으며 부분적으로나마 모두 인용하고자 했다. 인터뷰에서도 반복되는 내용과 진로나 여행 계획 같은 개인적인 문제만 제하였다. 일기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인터뷰 시 A에게 당시와 현재에 각각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시간에 따른 인식 변화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화 습득 단계와 충격 요인이 A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시간 순으로 배열했고 소주제는 일기와 인터뷰 자료에 기인하여 분류했다.

4. 일기와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4장에서는 A에게 받은 일기와 인터뷰 전사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후 각 시기마다 A가 이문화 경험으로 느끼는 사건과 이문화 스트레스 및 충격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세부 분석은 일기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주제를 나눈 뒤 이루어진다.

4.1 9월: 이문화의 침입으로 복잡한 시기

9월에는 일기를 두 번 받았으며 에피소드도 이후에 비해 훨씬 많다.

사실 A는 한국 생활 초기 2개월 동안 미국인들과 함께 지방의 한 장소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한국인의 수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인과 접촉하며 직장 및 가정생활을 한 것은 8월 20일부터이다. 따라서 많은 자극이 감지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인식과 언어 표현 방법

영어권 화자라면 한국의 식생활에서 느끼는 차이가 동양어권 화자에 비해 클 수 있다. 식사 시 예절과 도구, 식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중 대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책이나 대중매체, 수업 등을 통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현상의 이면에 내포된 의미이다. 내포된 의미가 외국인들에게 전달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문화 습득 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첫 번째 사례는 표면적인 현상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인식이 아니라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의미로부터 파생된 차이 인식이다. A는 왼손잡이다. A의 경험담은 한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에 대한 생각과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응대 방식을 보여준다.

“Oh! You’re left handed?!?” I am no longer surprised when people ask me if I am left handed and/or say that it means, “If you use your left hand, you must be a genius!” It happens quite often, though…And actually, my closer friends told me left handed-ness used be/is still considered bad luck…so, in my mind when people say “genius”to my face, I wonder if they are also thinking “bad luck” too. (2010. 9. 5.)

일반적으로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 사용 비율이 낮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볼 때 일종의 놀람을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A도 한국인들의 반응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정도이다. 한국인들은 표면적으로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거나 ‘천재’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A는 지인으로부터 왼손잡이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말과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한다.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은 현존하는 가장 뿌리 깊은 편견 중 하나이다 (Wright, E. 2008:8). 왼쪽이란 단어는 대부분 불길하고 무서운 의미를 함축한다. 현대 인구의 약 10%가 왼손잡이라고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왼손에 대한 차별과 압박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도 왼쪽에 대해 암묵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념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호의적으로 응대하는 한국적 표현 방식을 통해 표출되면서 A에게는 한국적인 인식과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는 경험이다. 이것이 한국적인 표현 방식으로 드러날 때 문화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진다.

“Don’t you think the food is too spicy? In the U.S. do people eat spicy food?” Spicy food is common in the US.[...] Also, because I love dokbokki, this question comes up far too often... when people ask me, “What’s your favorite food?” I immediately think to myself, “Uh-ohhh, here comes the ‘spicy question’ again...” I don’t mind the question. It gives me a reason to talk about the multiculturalism in America.[...]

(2010. 9. 5.)

한국에 김치,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이 많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만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매운 맛은 세

계적으로 대중적인 맛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같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맛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외국인들이 김치 같은 것을 먹는 것을 보면 놀라게 된다. 이런 놀람은 고정관념이 깨진 것에 대한 반가움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 표현이다.

A는 반복되는 상황과 말 때문에 한국인의 반색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multiculturalism’를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한국인의 이런 반응이 매운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매번 다문화주의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면 그는 언어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국적 표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 매운 음식에 대해 자문화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A의 반응도 충분히 ‘자문화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언어 표현 방법에 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You use chopsticks well. You use chopsticks better than me!” I always feel the person is not being honest when they say this. Most times they hold the chopsticks the same as me and can actually pick up things better than I can - so, “better”? uhh, no...It feels like FALSE modesty. Modesty is good, but from my perspective, when false modesty is so obviously transparent, it makes the situation awkward or kind of insulting. (2010. 9. 5.)

동양에서는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서양에서는 식사 시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젓가락은 다른 도구에 비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젓가락을 잘 사용

하는 외국인들에게 호감이 포함된 놀람을 표현한다. 위의 경우에도 한국인은 젓가락을 잘 쓰는 A를 보고 칭찬했다. 그러나 A는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기보다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국인들에 대해 오해하게 된다.

사실 “젓가락을 나보다 더 잘 쓰네요.”란 말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A는 호감 표현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말 자체에 집중했다. 한국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A는 말에 집중한 나머지 한국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A는 한국인들이 과장해서 말했다기보다 일부러 겸손한 척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mind-boggling) 한국인의 언어 표현 방법으로는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많은 단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도 포함된다. A는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문화 차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의 있는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생각이 A에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언행으로 이해된다.

위의 경험들은 모두 한국 생활 초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그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A와 처음 만난 것이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 A는 한국에 온 손님이자 대접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 표현으로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에 과장된 감정 표현을 시도했을 것이다. 첫 만남은 한 번뿐이며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볼 때마다 말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인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질문이나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식상함을 느끼는 상태는 초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본다.

문화 충격 목록별로 살펴보면 A는 이전에 동양의 다른 나라와 한국에와 본 적이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으며 ‘이문화 경험’ 수준이 높

은 편이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말에 대한 A의 반응과 서술 태도를 볼 때 그는 다분히 자문화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문화에 대한 일반지식’이 있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면서 ‘인식의 유연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었다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또 다른 의미가 파생되었을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동의 유연성’과 ‘적절한 행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간접적인 표현 방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아 ‘특정 이문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습득 단계에 비추어 보면, A는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가는 과도기이거나 2단계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실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A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그가 문화 습득 1단계인데 한국의 것을 잘 수용하고 있어서 칭찬하며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인식 단계의 차이는 의사소통 시 잘못된 이해를 낳거나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인관계 1

A는 지방에 위치한 국립남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이다. 교사로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 한국과 그 지방, 직장과 가족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었다.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하게 된다.

I feel I am good at using nunchi. I feel the mood of a person or group and I pick up on their body language and non-verbal cues.[...]

(2010. 9. 5.)

A는 미국인들이 분위기 파악에 빠르며 그 자신도 눈치가 빠르다고 생

각한다.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느껴야 하는 초기 직장 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자신이 한국적인 대화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 때, 한국인들도 어색해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때를 그는 일종의 문화 충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파악 같은 비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한 소통도 필요하다. 9월경 A는 직장 동료들의 언행을 통해 성격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9월 5일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중학교 주임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처음에 주임 선생님은 “only sometimes”라고 말했으나 결국 그는 매주 3일 보충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 일에서 A가 느끼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임 선생님의 부정직함이다. 주임 선생님의 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처음에 주임 선생님은 “only sometimes”라고 했고, 다음에는 “only twice a week”였으나 결국 A는 “three days a week” 일을 하게 되었다. A는 주임 선생님이 부정직한 것인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 “dishonesty” 쪽으로 판단이 기울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제안과 설득을 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주임 선생님은 우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쉽게 승낙하도록 말을 꺼냈다. 그 후 그는 본래의 계약과는 다르지만 이전 원어민교사들도 이와 같은 시간표를 받았다고 말했고 변경을 이해해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A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고 이메일로 이 사항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행동에 주임 선생님은 놀라게 된다. 결국 A는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A는 주임 선생님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이 말한 후 승낙하게 한 뒤 더 많은 시간의 수업을 할당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진 언행의 특징과 언어 장벽이 만든 사건이다. 이 시

기에 A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판단 근거의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언어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반화를 시킬 만큼 접촉빈도가 높지 않았다. 이상의 사건들을 보아 A는 새로운 환경에 흥분되는 문화 습득 1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는 느끼지만 그만큼의 정보는 없는 상태로 낯선 것들이 즐겁지만은 않은 2단계 초입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A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니면 언어적 장벽 때문에 상대방의 특성을 잘못 파악한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 즉, 한국의 언어적, 비언어적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사회 분위기 1

9월 말의 일기에서 그는 자신이 비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independent” and “college student” being the key words there. After coming to Korea, due to my program requiring me to live with a host family, I have had to give up some of my independence. Living with a host family requires me to fit my life around the family’s life and schedule, which is something I have not done since I was 18 years old...before college. It can be hard. It can be frustrating. I am very much dependent on people around me for basic things.[...]

(2010. 9. 29.)

A는 홈스테이 가족과 직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의존성이 높아졌고, 이차적으로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타지에서 생활할 때나 독립했던 개인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야 할 때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회적 분위기 차이에서 A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independent”에 대해 보면, 먼저 미국인에게 독립성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가족 중심의 생활, 친인척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개인 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은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⁷⁾

현재 A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방인으로써 불가피하게 독립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사소한 것까지 한국 가족들의 생활 패턴에 자신의 생활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독립성의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상실감은 이전 삶에서 누리던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한 한국 생활 초기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A는 가족들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문화적인 면에서 현재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가족들과 동료들도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Again, I want to say I have been having a GREAT time in Korea... despite these lifestyle changes. Yes, I often complain. Sometimes it helps me feel better to complain. Yes, I have bad days--everyone does whether at home or abroad-- though, I know overall I am happy. I need

7) 연구 대상자가 미국인이 아닌 동양어권 화자였다면 독립성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to remember: “This year is what I make of it.” This short sentence holds a lot of power.[...] (2010. 9. 29.)

위의 일기는 한국 생활에 대한 A의 양가적인 감정이 그대로 노출된다. 실제로 그는 안락한 집과 직장,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주 불평하게 된다. A는 이런 감정이 이문화 생활에서 당연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위안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이 시기에 그는 “complex”의 사전적 의미를 일기에 적었다. 9월의 A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보인다.

9월 말에 A는 내재한 ‘이문화 경험’이 문화 적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문화에 대한 일반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는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정 이문화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기술’이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라 하겠다. 그는 이문화의 침입으로 복잡하며, 이에 대해 불평하면서 위안을 삼는 습득 2단계에 와 있다고 보인다.

4.2 10월: 이문화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소진된 시기

새로운 사건은 줄어들었으나 대상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더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축적된 정보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 대인관계 2

[...]I am often very tired when I get home, so it’s hard to focus and work and still be smiley for the host-family...well, I am actually not sure they think I am smiley and fun or not. I do not often talk or show

them much emotion. I am rather stoic when they talk with me. Their lifestyle bothers me, so I have a hard time being around them.

(2010. 10. 20.)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된 10월경 A는 극도로 지친 상태였다. 여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한다. 10월 중에 그는 학교 수업과 보충 수업, 클럽 활동과 운동, 연주회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 왔을 때 가족들과 웃고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이 점에서 그는 가족과 편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 친밀감을 강조하는 한국형 가족 문화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3월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과 친밀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유롭게 싶다는 바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했다. A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두 가지 욕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A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

• 제도와 관습 1

A의 직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 제도와 관행은 한국의 제도를 대표하게 된다.

[...]They have to recruit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is absurd.[...] The schools of this City do this. How awful it must be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No one likes it, but everyone does it. This is an element of society that should crumble, but due to formalities of “one’s place” as linked to Confucian ideas and the “rat race” which is Korean society, I do not see how it can change here. (2010. 10. 20.)

A는 한국의 교육과 행정 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고등학교

들은 학생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학교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유치경쟁을 벌인다. 그는 학생 유치경쟁은 학생들을 혼란시키는 일이며 이런 일이 사회를 흔드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을 모아서 학교의 자부심을 강하게 하는 일은 한국의 유교적 사고, 경쟁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권층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교는 한국의 주요 전통 사상이며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A는 형식적인 관행 속에 내재된 한국의 특성 때문에 행정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관행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인이라면 한국이 가진 만성적 교육문제로 치부하고 간과할 것이다. 그러나 A는 전혀 달랐던 미국의 교육문화와 한국을 비교하게 되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충격에 빠진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2개월이 된 A에게 교육 제도를 통해 본 한국 제도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특정한 이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안다고 해도 자문화와의 간극으로 인해 ‘인식의 유연성’이 낮은 상태이다. 그는 일기 마지막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am tired, so how can I maintain this? Will my energy-levels adapt? Only time will tell. I must stay committed to this life, even when tired.[...]
(2010. 10. 20.)

9월에는 힘들지만 삶의 목표를 되새기며 평정심을 찾아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0월에는 지친 것을 인정한다. A는 바쁜 생활에 지쳐서 이 삶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자문한다. 이 상황에서도 삶의 변화를 원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대한다. 그러나 9월

에 비해 훨씬 지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생활 4개월이 되었을 때의 상태이다.

A는 여전히 일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고갈을 느낀다. 문화 습득 2단계에서 충격의 정도가 커지면서 복잡함(complex) 안에서 규칙을 찾기 힘든 상태, 또는 찾을 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A는 ‘이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알던 것과 다르고, ‘특정한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 충격이 컸으며 ‘행동과 사고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힘들어 하고 있다. 문화 습득 단계로 보면 2단계의 정점으로 이문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4.3 11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태동 시기

11월의 A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그가 인관관계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대인관계 3

A는 직장과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도 한국인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 중 친밀한 관계를 형성중인 2명에 대해 길게 소개한다.

I have been meeting more and more Koreans recently.[...] These two people are SO great! Also, I recently met another person who is super awesome. I hope we will become good friends! (2010. 11. 1.)

한 명은 또래 친구로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가깝게 지낸다. 친해진 이유

가 나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그들은 친해졌다. 다른 한 명은 태권도 사범으로 운동할 때마다 만나는 30대 후반의 남자이다. 그도 영어를 조금밖에 모르고 외국 여행 경험도 없지만 A의 삶에 자극을 주는 사람으로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대상이다.

이 두 사람은 9월 중 일기에서 느끼고 있던 언어적 장벽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A는 더 이상 언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수단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놓을 때 그가 맺는 대인관계에도 깊이가 생기며 A도 훨씬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I feel living with a Korean host family has been disappointing.[...] The family is nice, but I think many people are nice in the world, so it is important to be nice + something else...but I think this family lacks the "something else." They are simply, "nice people." ...Is that mean of me? I am not sure...maybe my feelings will change. I will just have to try to be more positive. (2010. 11. 1.)

가족 이야기는 10월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A는 직장과 가족 양쪽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과 자유롭고 싶다는 독립심 사이에서 양가적인 감정으로 가족을 대하고 있었다. 11월에 그는 가족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이 가진 특수성이 작용하며, 홈스테이 엄마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불편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좋은 사람들’이면서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부족한 가족으로 평가된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매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한 만큼 접촉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의 양은 증가하고 깊이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심도가 생기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대할 때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는 가족 성향의 영향으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상에 대한 판단이 한쪽으로 정립되면서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 제도와 관습 2

직장 동료인 교사들은 A에게 한국의 교육 제도와 관행을 보여주는 대상들이다.

[...]I am awestruck and frustrated they teach students a language they do thoroughly know...I know I am being too critical, but I have high expectations from teachers. (2010. 11. 1.)

직장에서 그는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준비 없이 가르치는 모습에 당황하고 실망스러워 한다. A는 교사라면 당연히 그 분야에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A는 영어 교사와 대화할 때는 일부러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적당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히 알지 못한 채 교수한다. 이런 모습이 충격이었다는 말은 인터뷰 중에도 언급되었다.

이는 ‘특정한 이문화에 대한 지식’, 즉 학교의 잘못된 관습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발생한 문화 충격이다. 지식의 정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알게 되어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11월에 A는 ‘이문화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직장 생활에는 회의를 느끼고 생활에서 만난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는 흥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문화 경험’이 많아지면서 ‘인식의 유연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아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와 관습도 있다.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았던 10월에 비해 11월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습득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의 과도기라고 판단된다.

4.4 12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성장 시기

12월 일기의 세 가지 에피소드는 매우 짧고 간결하다. 새로운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대인관계 4

[...]I have recently realized something: The[sic] more I express my thoughts to older people the more they understand my situation and try to help me.[...]
(2010. 12. 2.)

A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쓴다. 둘 다 좋다고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즐거운 상황이다. A는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자신이 좋은 것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더 표현하면 할수록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깨닫는다. 이러한 진실은 가족이나 동료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어도 시도하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름에 대해 언급하며 깊이 있는 대인관계 형성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침언한다.

A는 상대에 대한 일차적인 파악 이후에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어도 표현하려는 내면

의 자세와 태도가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 제도와 관습 3

학교의 교육과 행정 문제에 이어 체벌 제도에 대한 회의가 나타난 부분이다.

I always see at school that older teachers, especially people 40+ in age, who hit students. This is hard for me to see since I come from a school system where this can never happen.[...] (2010. 12. 2.)

교내 체벌은 가장 놀랐던 일이고 자주 보지만 아직도 경악하게 되는 학교 관행이다.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 체벌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정한 이문화 지식’에 속하며 알고 난 후에 충격이 감소되기보다 알수록 더 충격적인 학교 문화이다.

이러한 체벌은 4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을 통해 주로 행해진다. A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으로 타인에게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기도 하는 특성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여가 학생 체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체벌은 사실상 금지된 처벌 방법이다. 그러나 나이 든 교사들은 습관적으로 체벌을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허용되는 관행이겠지만 외국인의 시전에는 충격적인 학교 문화이자 한국의 문화인 것이다. 다음은 가장 큰 스트레스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것도 한국 교육계의 관행이 낳은 문제로 보인다.

T8): When did you feel the most difficult and hard time in Korea?

A:(3.0) **One day before:: leaving Korea**, so on December 23rd(웃음) So I(2.0) finished class on the 22nd(2.0) and my schedule for everything was set:: winter camp date, travel date.(3.0) **One teacher said before you leave:: you need to turn in your lesson pla::ns 30 page::s of lesson plans**(2.0) for a club class.[...] I was in so stress. I cried, I've never cried. I called my mom.(웃음) I called XX office. **I called everyone.**
Oh:: It was awful. now It is ok. I'm alive.

12월 말 일본에 가기 전날 A는 갑자기 수업 계획표를 요구받았다. 이전에 확인했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한 가지 문제로 다른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A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호소했으나 결국 하루 늦게 출국하고 말았다. 그는 이 일이 한국의 학교 제도, 특히 일의 순서가 없고 변수가 많고,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에 A가 학교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중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사건이라고 하겠다. 인터뷰 중 A의 표정과 말투, 소리 크기 등을 통해 그가 얼마나 당황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12월에 A는 11월과 비슷하게 ‘이문화 경험’이 쌓이면서 ‘특정한 지식’을 확장해가는 단계로 완전히 새로운 충격은 없다. 그러나 여행 전날의 사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도 이전보다 충격이 적은 만큼 ‘인식의 유연성’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행동의 유연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알고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는 아직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T는 인터뷰 중 연구자를 지칭한다.

4.5 1, 2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성장 시기

- 사회 분위기 2

이것은 3월의 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 2월 여행 중에 느낀 점을 회고한 것이다.

This sounds rude I think, but it is how I felt, sorry! When I arrived in Japan the thing I immediately noticed and loved is the diversity of Japanese people. Japanese people (seem) to have more diverse faces and body-types than what I see in Korea. And Japanese culture strives for “uniqueness,” whereas Korea strives for solidarity.[...]

(2011. 3. 25.)

A는 1, 2월에 일본과 충청북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월 일본 여행에서 그는 오랜만에 접하는 다양성과 독특함에 행복해한다. 일본 문화는 얼굴과 몸을 통해 독특함(uniqueness)을 표현하지만 한국은 결속을 더 중시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에 한국이 변하고 있다 해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국이 일체성을 지향하고 개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은 일종의 민족성이다. 이런 점이 A에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때는 잊고 있었던 다양성을 접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특정 이문화에 대한 지식’을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느낀 사례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연대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A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특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본의 다양성에 호감을 표현할 뿐, 한국의 일체성을 비판하려는 태도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일체성에 안정감이 느껴진다고도 말한다. 그만큼 A는 한국에 익

숙해져 있는 상태이며, 객관적인 태도로 한국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객관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선은 다른 내용에서도 발견된다. 2월 중 A는 충청북도에서 열린 캠프에 참여하는데 가는 길에 불법이주민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한국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보고 있다.

A: I have a story **kind of about immigrants**. I was going by train to 충청북도 to study last month(2.0) and(2.0) on the train. I was talking to some immigrants from Vietnam, how they came to Korea. They are working in Korea probably illegally. I asked why?(1.0) and they were like, Are family is poor. Anyway, I think(1.0) I have a special place in my hearts(1.0) for illegal immigrants because my family:: was illegal immigrants to the US two generations ago. I am always curious about their stories.

A는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지어 베트남 노동자들을 생각한다. 베트남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난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을 것이다. 그는 이런 외국인에게 관심이 있다. 그의 가족들도 오래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와서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25% 멕시코,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이라고 일기에 쓴 적이 있다. 그의 조부모가 미국에 이주했을 때의 상황과 처지를 현재 베트남에서 온 불법노동자에게 이입하여 생각한다.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미국이라는 다문화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미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했으며, 가족사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열린 마음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다름을 수용하고자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이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개인의 성향이 처음부터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한국 거주 7개월에서 8개월이 된 A는 이제 개인적 성향이 생활에 반영되고, 외국인으로서보다 한 개체로서 대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은 증가했으며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문화에 대한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이와 함께 ‘적절한 행동’과 ‘대인관계 기술’도 향상되었을 것이라 본다. 1, 2월에 A는 3단계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6 3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발전 시기

- 대인관계 5

다시 한국의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두 달 동안 소홀했던 사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돌아본다.

The main point is, I did not meet these xx friends for a two months. Now I am back. I see that we are very different people and these differences are now inhibiting the growth of our friendship. Our friendship is like a plant with no water.[...] (2011. 3. 25.)

11월 이후부터 A는 대인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있었으나 방학동안 거주지를 떠나 있어서 거주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두 달 여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A는 이전보다 어색하고 재미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커피숍 주인, 아르바이트생, 태권도 사범, 안경점 점원으로 A와는 삶의 환경과 위치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다. A는 이런 다름이 현재 관계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깊이가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짧고 얇은 우정이 아닌 길고 깊

은 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초반의 대인관계 형성 시에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에 비해 한국생활 9개월이 된 지금은 관계의 깊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인관계 형성 과정이 비슷하겠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노력과 성장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At the home-stay my host family is now a very uplifting part of my life. They have taken more initiative to live happy and satisfied lives. The family takes more responsibility in their life.[...] (2011. 3. 25.)

현재 가족은 그에게 활력을 준다. 가족 구성원에 대해 많이 알게 된 만큼 마찰은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객관적으로 가족의 태도가 변한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가족 변화의 계기는 인터뷰 중에도 언급되었는데 그가 여행을 간 사이 한국 여자가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녀는 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 그녀 덕분에 예의 없게 행동하던 홈스테이 아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아들로 인해 생기던 부부간의 마찰도 줄어들게 되면서 가정은 안정적이 되었다. A는 방관했던 홈스테이 아들과 친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 학생들과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옛날 학생들이 그림기는 하지만 익숙해진 학교 환경과 동료들로부터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A는 이번 일기에서 아주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은 한 학생이 안경이 없어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가 준 일이다. 이전까지 A에게 학생은 한국인 학생이란 통합체였다면 지금은 개별적인 학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개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관심이 생기고, 보게 되고, 가능하면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다. 그만큼 사회와 대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코티처 한 명이다.

The bad things at my school are related to my co-teacher. He, just one person, makes my life very hard to enjoy. He is an overly-confident, unreliable, unappreciative, shortsighted man who does not see his flaws and always assumes he himself is right. He is in a place of power within the English department (head of the department), so, unfortunately, I must rely on him for many things. I think I will leave my school. [···] (2011. 3. 25.)

코티처는 객관적으로 성격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A는 그가 자만심에 차 있고 신뢰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사건이 작용하였다. 인터뷰 중 알게 된 내용으로 그는 우선 자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룬다. 한 예로 A에게 줘야 하는 항공권 구입을 미루다가 A는 제때에 비행기 표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인천까지 왔다가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다. 비행기 표 때문에 A가 질문을 할 때마다 코티처는 “Don’t worry, Don’t worry, Tomorrow, Tomorrow”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예로 캠프 때 A의 친구들이 캠프를 도와주기 위해 교사로 참여했는데, 그 비용 지급도 몇 달이 지난 후 홈스테이 어머니가 직접 해결해야 했다.

코티처의 영어 실력은 나쁘지 않으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응시만 하지 듣지는 않는다고 인터뷰 중 말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의사소통 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코티처는 A의 상사이며 지도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A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매일 접촉할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불편하다. 그 결과 A는 지금 학교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을 결심한 상태이다.

코티처에 대한 이야기는 3월 인터뷰 중에 처음 나왔다. 그 전까지 A는 코티처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나 문제를 전면 화시키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 것이다. 1년간 정들었던 학생과 동료 가족을 떠날 만큼,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한 명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3월의 A는 ‘이문화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에 주의를 기하고 있고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도 훨씬 좋아졌다고 보인다. ‘특정한 지식’도 증가하면서 한국 생활에 편하게 임하는 것 같다. 문화 습득 3단계에서 차이를 받아들이며 느린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7 4월: 개별 대상에 대한 관심 증가 시기

4월 일기에는 담배를 소지한 학생들과 대면했을 때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 A는 밤에 매점 맞은편 골목에서 두 학생과 한 한생이 만나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그것은 담배였다. 이전에 A의 학생 중에 담배 때문에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담배에 대해 잘 모른 채 계속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직접 그들에게 다가갔다. A는 “학생이에요? 주세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강하게 담배를 빼앗아 던져 버렸다. 학생들은 무엇인가 말하며 담배를 주워 사라졌다.

A는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매우 불편해했고 어느 선까지 말했어야 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학생들이 흠친 것이 아니었는지, 학생들을 데리고 매점에 가서 누가 팔았는지 찾았어야 했는지 등을 자문하고 있었지만 답

은 없었다. 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일찍 성인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즐기면서 생긴 문제 중 하나이다. A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과 학교의 비효과적인 처벌 방식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

이전과 달리 A의 관심은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으로 축소되고 있다. 학교와 가정, 사회 전체로 향하던 관심이 구성원들과 개별 사건으로 좁혀지면서 깊이 있게 대상을 보고 해석한다. ‘특정한 이문화에 대한 지식’에 노출돼서 알게 된다고보다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태도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을 동반하기 쉬워질 것이다. 4월에 A는 여전히 문화 습득 3단계이지만 공감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커진 상태라고 하겠다.

4.8 3월 인터뷰를 통한 해석

여기서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A가 직접 추측, 해석한 것을 통해 처음에 생각과 현재 변화된 생각을 비교하여 해석한다.

- 인식과 언어 표현 방법에 대한 A의 해석

첫 번째는 9월 일기 중에서 다루어졌던 왼손잡이와 매운 음식, 젓가락 사용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에 대한 A의 해석이다.

T: You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8months. Do korean still ask you're left handed?

A: Um:: When I first meet people they just notice:: Because I met many people in my schedule, people I see normally they know already, so they are not surprised. But if I meet someone new, yeah, same thing.

T: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A: And spicy food, yesterday I told you I ate dalkalbi (웃음) so when they put spicy sauce on **they started and then stopped and looked at me.**(2.0) And I was like, “That’s OK.” And they continued to put more on. They are considerate. It’s nice. It’s OK.(웃음) No problem.

T: If korean say to you same words, what would you think about that?

A: Now(2.0) I’m use to it.(2.0) So, I just felt: “Don’t let it bother me.” I’m like “Ok, so what.” But it doesn’t bother me now.

T: 처음에는 bother you, But now

A: Because so many people:: when I first I arrived(1.0) I met so many people.

연구자는 현재도 왼손 사용에 대해 질문하는지, 현재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매운 음식에 대한 반응도 처음 A를 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지만 A는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문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A는 처음에 왔을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고 귀찮은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A의 해석은 연구자가 해석한 것과 거의 일치했다. 첫 만남에서 한국인이 상대를 대접하려는 의도에서 관심을 표현하며,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호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계속 놀람을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해석을 통해 한국 생활 초기에 한국인들이 비슷한 질문과 반응을 반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의 반응도 둔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왜 한국인이 이런 질문을 했을지와 왜 이런 반응을 “False modesty”로 느꼈는지에 대한 A의 해석

이다.

T: Why do you think Korean said to you like this?

A: I think because I'm foreign(1.0) and they know that foreigners use forks and spoons not chopsticks, so they see me use chopsticks and maybe like(2.0) rather than saying, "Good job," they excessively compliment or encourage::

T: 맞아요.

A: They say, "Oh, you're so good, like better than me." Encourage me but(1.0) sometimes I wish they would say, "You're good," rather than(1.0) "You're better than me. You're an expert" I'm not really an expert.

T: At that time, Why do you think that it's a kind of false modesty?

A: Because it's not just "Oh, you are good" but "You do well and better than me."

T: It's not a fact.

A: Right So, again, things don't bother me.(2.0) It's like:: I'm over it. Oh, OK, whatever. I think at first(4.0) because it's not a fact don't say(1.0) it's not true. You are trying to be nice(2.0) but you're not being truthful.(웃음) Ju::st different cultural ideas::

A는 외국인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칭찬으로 한국인들이 “나보다 더 잘 사용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이해했으나 거주 9개월에 접어들어서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는 초기에 같은 유형의 질문과 반복되는 똑같은 반응이 불편함을 야기했으며 잘한다고 아닌, 더 잘한다는 과장된 말이 문제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겸손한 척 하는 한국인이란 느낌이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말은 진실하지 못한 말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 표현이다. 그러나 좋은 말이라도 과장된다면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A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라고 말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차적인 표현 방법이 언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는 한미 간 언어 표현 방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 대인관계에 대한 A의 해석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코티처이다. 코티처와 관련된 사건은 인터뷰 중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3월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요인이 컸으므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겠다. 코티처 외의 동료들과는 거의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는데, 그들과는 피상적(shallow)이고 깊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교류를 갖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특별히 친밀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였다.

가족에 대한 언급은 3월의 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편해진 상태였다. 변화는 아버지의 옛 제자인 30대 여성이 가족 일원이 되면서 A가 방관했던 문제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A가 집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좀 놀랐지만, 완전히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그는 현재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9개월이 된 현재 A에게 대인관계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자체가 변하거나 A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용하는 정도도 변하고 있다. 다음은 의사소통 시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T: If you have some problem, these problems in communication due to cultural difference?

A: It's almost:: never language; it is almost always cultural.(3.0) Um:: is that true? No, because(4.0) it's like a mix.(4.0) If I have a problem if I am in the USA I would be direct. Like, “**Hey, this is the problem.**” So, I know I can't do that in Korea so I try to communicate indirectly, not so strong, but I can't really. So it is a mix of culture and language. I can say the problem correctly. It is easy to say, “**This is the problem**” I've learned that but **it is hard to say that soft.**

A는 처음에 자신있게 문제는 언어 때문이 아니라 문화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바로 자문한 뒤 혼합된 문제라고 수정한다. 보통 원활한 의사소통은 언어를 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문화였다. 언어를 안다고 해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도 자문화의 영향과 개인의 습관에 따라 목표 문화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언어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A는 같은 상황이라도 미국이라면 직접 ‘문제’에 대해 말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국적 표현 방법과 대처에 맞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지적할 수 없으며 간접적인 언어 표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수해 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A는 배워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법은 A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도 사용해야 했다. 그 예로 코티처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했을 때 그는 직접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를 말렸고 간접적

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A는 이런 점이 한국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일종이고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통의 장애는 일차적으로 문화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인식하면서 체험과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제도와 관습에 대한 A의 해석

A가 한국의 학교 제도에서 충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이 기대와 달랐다는 점이다.

T: Have you ever fell again Koreans are not honesty?

A: (4.0) I think that was a cultural misunderstanding.(3.0) I think(2.0) in the small town education system(2.0) the:: expectation, the people think there is just:: say something for formality. How do I explain?(3.0) Like:: just do it(1.0) because:: it looks:: professional so just do it. I have to turn in:: paper work(2.0) but it is **in English. It looks nice and professional** but no one reads it. **Actually, they don't know what I writing** but(1.0) it is in and they have it.

부정직한 한국인을 경험한 것은 지난 9월, 수업 배당 시 주임선생님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방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3월에 A는 이것이 한국적 문화라고 이해하고 있다. A는 작은 도시의 교육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형식을 우선시 하며 실제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형식적인 일들은 실제와 다르며 이런 일들을 요구받는 A는 한국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적용되는데, A가 볼 때 교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교사들이 학생과 자기 직업에 정직하지 못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과 노력이 부족한 교사들의 모습과 교육과 관계없는 서류 작업에 치중하는 교육 제도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정직하지 못한 한국 제도의 일면을 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A는 “I think that problem I wrote about was a cultural misunderstanding.”이라고 말했다. 부정직하다고 느낀 것이 한국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

● 사회 분위기에 대한 A의 해석

A는 홈스테이 생활 초기에 독립적일 수 없는 생활환경에 답답함을 느꼈다. 현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었다.

T: First time, When you came your home, You think you lose your independent. Do you think you became to be independent in Korea?

A: More independent. In the USA, most independent now middle beginning less.(1.0) Because now(1.0) I feel more comfortable with my homestay I can say:: “Oh, I will come home at tonight, I will come home later, I will miss dinner.” **In the beginning I tried hard not to travel. I tried hard to stay** with the host family to eat dinner and create a bond in the beginning. So I had to:: stay there.(1.0) So:: maybe I thought, “I want to go somewhere else” but I thought, “I want to meet them, get to know them.” So:: it felt trapping a little bit-I felt trapped. But(1.0) now I am OK. I am in Seoul this weekend.(웃음) I can travel and **they’re OK.**

A는 미국에서는 매우 독립적이었고 현재는 중간, 처음에는 거의 독립

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9월에 A가 독립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가족이 함께 사는 집, ‘이문화 지식’ 부족으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의 영향이 컸다. A의 말에 따르면 초기에는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해지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압박관념과 함께 다른 한 편으로는 여행하거나 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의무감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를 매우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매순간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초기에 비해 현재는 자신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들의 개입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생활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자유에 대한 제약을 둔 외부적 압력은 없었다. 이런 변화는 삶에 익숙해지면서 A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독립성 상실은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라기보다 타지 생활 초기에 겪게 되는 여러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인다.

A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필수 ‘이문화 지식’은 알고 있었고 ‘특정한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돌출한다고 해도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다. 이런 그에게 한국에 언제쯤 익숙해졌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그는 정확한 시기가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매순간이 적응해야 하는 순간이었고 심지어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영어권 화자의 9개월 동안의 일기와 인터뷰

류 자료 분석을 통해 문화 습득 과정을 살펴 본 사례 연구이다. 미국인 A 한 명에게 집중하여 문화 습득 과정과 충격 요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하였다.

연구자와 기숙사 생활을 하던 7, 8월의 A는 한국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9월부터 홈스테이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적 인식과 언어 표현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 사회를 이질적으로 느끼면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문화 사건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외관상 드러나는 특징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과 돌려서 말하는 표현법,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임에의 참석,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의사 결정, 한국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이 있었다. 문화 충격 요인으로는 문화 충격 목록 모델의 8가지 항목이 모두 부족한 것을 들 수 있었다. 한국 생활 3개월 경 A는 문화 습득 2단계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10월에는 가족과 동료들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제도와 관습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이문화 사건으로는 한국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과 행정 처리 문제가 있었다. 문화 충격 요인으로는 본래의 관습과 새로운 문화 습득 욕망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부족과 적절한 행동 부족, 이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특수한 지식의 부족, 대인관계 기술 부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생활 4개월경 A는 문화 습득 2단계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후 11월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서 생각의 유연성이 내재하기 시작했다. 이문화 사건으로는 한국인과의 사적인 교제,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과의 관계, 일부 교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다. 문화 충격 요인은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부족뿐만 아니라 특정 이문화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것도 들 수 있었다. 이문화 경험 증가와 대인관계 기술 향상으로 문화 충격이 완화되는 시기도 이쯤이다. 한국 생활 5개월 경 A는 문화 습득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12~2월에는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이 성장하면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이문화 사건으로 교내 체벌, 국내외 여행, 한국인들과의 교제, 불법체류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문화 충격 요인으로 여전히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 부족이 거론되며 상대적으로 특정 지식과 이문화 경험이 증가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도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문화 충격 목록의 8가지 항목이 모두 향상되면서 이문화에 적응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생활 6~8개월경 A는 3단계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였다.

3월에 인터뷰와 일기를 통해 본 A는 모든 면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부분에서는 확실히 개인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문화 사건으로는 한국인들과의 교제 유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학교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 내에서 문화 충격 목록의 8가지 항목은 계속 향상돼 문화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한국 생활 9개월이 되었을 때 A는 문화 습득 3단계에 들어 선 것으로 보였다.

4월에는 특정 학생들과의 마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관심이 축소, 집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과 행동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문화에 적응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 생활 10개월이 된 A는 문화 습득 3단계로 한국에서 한 개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을 통해 영어권 화자의 문화 습득 과정을 보면 호기심을 보이는 1단계는 약 2개월이며 문화 충격 단계인 2단계는 거주 3~8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후루카와 아야코(2006)의 일본인의 문화 습득 1단계(약 1개월)와 충격을 벗어나는 초기 적응 단계가 6개월 전후라는 분석과 비교했을 때, 초기 단계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문화 사건으로 충격을 경험하는 기간이 긴만큼 문화 교육 자료와 내용도 다른 대상과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인 1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

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 연구로, 이를 통해 문화 습득 과정과 충격 요인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영어권 화자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이문화 사건과 문화 습득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실제로 외국인이 느끼는 문화 차이는 교과서나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 사는 영어권 한국어 초급 화자들이 겪게 되는 문화 충격 요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 문화 교육의 기초 자료에 반영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화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연구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야노 미찌코(2002). 재한 일본 유학생의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와타나베 요시아스(200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혜경(2004).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5개 대학 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엽지연(2006). 한국어 학습자의 좌절감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2005).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수준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혁심(2005). 서울 지역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민(2006).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해연(2007).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인 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후루카와 아야코(2006). 재한 일본인의 문화 충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4쪽.
- Adler, P. S.(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e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 15 no.4 pp. 13-23.
- Brown, H.(2007).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 (5th ed.), 이홍수 · 박주경 · 이병민 역(2007), 외국어 교수 · 학습의 원리,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200쪽~209쪽.
- Hernandez, L. A. U.(2002). *Linguistic and Culture Dimension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Venezuelan Case Study*, Xlibris.
- Lincoln, Y. S. & E. G. Guba(1985). *Natural Inquiry*. Newbury Park: Sage. pp. 359-360
- Merriam, S. B.(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Norton, B.(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Longman.
- Nunan, D. & J. Choi(2010a). “Language, culture and identity: framing the issue”. In Nunan, D. & J. Choi (ed.). *Language and Culture: reflective narratives and the emergence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Oberg, W.(1963). “Cross-Culture Perspectives on Management Princip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1. pp. 129-143.
- Parsons, R. L.(2007).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isation of Universities on Domestic Students*, Ph.D. dissertation, Griffith University,
- Pavlenko, A.(2007). “Autobiographic Narratives as Data in Applied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28(2). 163-188.
- Redden, W. J.(1975). *Culture shock Inventory Manual*, New Brunswick Canada: Organizational Test Limited.
- Wright, E.(2008). *A Left - Handed History of the World*, 송설희, 송남주 공역 (2008). 『원손이 만든 역사』. 말글빛냄, 8쪽~11쪽.

<부록 1>

전사 표시

표시	의미
?	물어보는 말
“ ”	A가 인용하는 말
진하게	A가 강조하는 말
_____	연구자가 강조하는 말
::	길어지는 소리
(1.0)	1초 휴지
(2.0)	2초 휴지
(웃음)	웃음

<부록 2>

자료 수집 과정 일정표

연구 방법	시기	거주 개월	에피소드 수	비고
일기 자료	2010. 9. 5.	3	6개	
	2010. 9. 29.	3	3개	
	2010. 10. 20.	4	3개	
	2010. 11. 1.	5	3개	
	2010. 12. 2.	6	3개	
	2011. 1~ 2.	7, 8	방학 중 국내외 여행과 영어 캠프 참가로 일기를 받지 못함. 3월 일기에 여행 소감이 포함됨.	
	2011. 3. 25.	9	4개	
	2011. 4. 18.	10	1개	
직접 인터뷰	2011. 3. 12.	9		약 90분

박현진(Park Hyun-Jin)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전화번호: 010-8205-9258

전자우편: mechuragi@korea.ac.kr

투고일자: 2011. 8. 20

심사(수정)일자: 2011. 9. 14

게재결정: 2012. 1. 30